

폭스 “휴대폰 게임시장 진출”



최근 게임 시장 진출에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이 20세기폭스를 통해 휴대폰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 25일(현지 시각)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20세기폭스가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의 개봉을 계기로 휴대폰용

비디오 게임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게임 개발사인 소렌트사와 2년간 계약을 맺었다. ‘로봇’ 모바일 게임은 가정용 게임기 타이틀로도 동시에 출시될 예정인데 비방디 유니버설 게임에서 나올 예정이며 또 폭스와 소렌트는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 ‘킹덤 오브 헤븐’과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아이스에이지’ 등 영화의 휴대폰용 콘텐츠 공동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소렌트에 약 2,0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한 BA벤처 파트너스사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자 200억달러 규모인 세계 비디오 게임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하였다.

웹드부시 모건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패히터도 “라이선싱 계약은 콘텐츠 회사가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그들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번 계약을 평가, 이번 거래는 콘텐츠 제작자와 비디오 게임 회사간 파트너십 사례중 하나로 풀이되며 EA는 1월 ESPN과 무려 15년간의 독점 사용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출처: 전자신문)

노키아, TI가 개발 다기능 칩 탑재한 저가형 휴대폰 내년 초 시판

노키아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개발한 다기능칩을

탑재한 저가형 휴대폰을 내년 초 시판한다고 발표하였다.

노키아와 TI는 노키아의 본사가 있는 핀란드의 에스푸에서 “1개의 반도체를 사용한 휴대폰은 검사 시간이 단축돼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저가형 휴대폰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TI는 지난 2002년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여러 반도체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한 다기능 칩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키아는 이 제품을 내년 초 인도와 중국 등에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 컴퓨터업체들 '그리드 컴퓨팅 확산' 손잡았다

IBM, 인텔, 휴렛패커드(HP),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세계적 컴퓨터업체들이 오픈 소스 그리드 개발과 그리드 컴퓨팅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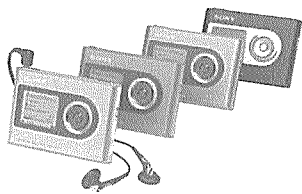
글로벌스 툴킷은 대학, 기업 등이 그리드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지난 1996년 일련의 과학자들이 처음 선보였으며 컴퓨터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 슈퍼컴퓨터급의 막대한 성능을 내는 그리드 컴퓨팅은 지금까지 주로 실험실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기후 변화, 고에너지 물리학, 지진 시뮬레이션, 유전자 연구 등은 대표적인 그리드 컴퓨팅 활용 분야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리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석유 탐사, 의약 연구 등을 중심으로 그리드 컴퓨팅 상용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시카고대의 컴퓨터과 교수 이안 포스터는 “이번 컨소시엄은 글로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업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IBM의 켄 킹 그리드 컴퓨팅 부사장은 “그리드 컴퓨팅은 처음엔 정부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상용화 길을 걷고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리눅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드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 마이크로소프트(MS)도 글로벌스 프로젝트에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글로벌스가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새 연합체에 MS가 참여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DC의 한 애널리스트는 “글로벌스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가상화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가상화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작년 193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년만에 1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0시간 재생가능한 20GB 하드디스크 타입 네트워크 워크맨 출시



워크맨 신화 부활의 신호탄인가! 소니가 하드디스크 타입 MP3플레이어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MP3P 시장 공략에 나섰다.

소니코리아(대표: 윤여을 www.sony.co.kr)는 20GB의 용량과 최대 30시간 재생이 가능한 하드디스크 타입 네트워크 워크맨 NW-HD3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NW-HD3는 20GB 용량의 1.8인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MP3플레이어로서 재생시간은 동급 최강, 크기는 동급 최박형을 자랑하며 자체 충전지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 시 최대 30시간의 재생이 가능, 20GB의 하드디스크에는 타사 제품의 약 2배 이상인 CD로 약 900장 분량에 해당하는 13,000여 곡의 노래를 담을 수 있다.

멀티 코덱 재생 기능으로 ATRAC 파일 뿐 아니라 MP3 파일도 플레이어에 저장 후 바로 재생할 수 있으며 MP3, ATRAC3, ATRAC3PLUS 등 다양한 음원과 호환되어 MP3 파일만 재생되는 기기와의 차별을 두었다.

디지털 기기의 기본 색상인 심플한 실버 & 블랙 외에 최근 휴대용 기기들의 칼라 바람을 반영하듯 산뜻한 핑크 & 블루 색상을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알루미늄 소재의 매끈하고 깔끔한 본체는 다채로운 색상과 어우러져 소니다운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

휴대용 음악기기에서 HDD의 채택은 충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점을 감안, NW-HD3에는 외부의 충격에서부터 하드디스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G-Sensor를 내장하고 있어 만약 기기를 떨어뜨릴 경우 떨어지는 순간을 감지해 하드디스크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또, 충격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소재로 만들어진 내부의 보호재를 채택, 각종 물리적인 충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빠른 속도의 USB2.0으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이동과 저장 이 보다 간편하며 제품 구입시 제공되는 편집 소프트웨어인

소닉스테이지(sonic stage 2.3)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데이터 압축, 복사 및 편집 기능은 기본이고, 기존 MP3 파일, ATRAC3 파일을 구분하여 전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파일이든 상관없이 소닉스테이지를 통하여 직접 본체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日, 휴대전화용 3차원 내비게이션 기술개발

미쓰비시 전기, NTT 도코모, 파스코는 1월 3일, 휴대전화 화면에 안내정보와 함께 3차원 지도를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컴퓨터나 카 내비게이션 화면상에 지도 정보를 표시하는 안내 서비스의 경우, 평면 지도보다는 실제 경관에 가까운 3차원 지도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알기 쉬우나, 일반적으로 이 용되는 3차원 지도는 평면지도에 비해 데이터량이 수십~수백 배나 되므로 통신속도 및 데이터 용량의 제약으로 휴대전화로 서비스된 전례가 없다.

일본 총무성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GIS의 실용화를 향한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시판되고 있는 3차원 도시지도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 데이터로 압축하여 배신하는 소프트와 배신된 데이터를 휴대전화 상에서 3차원 지도로 구현하는 소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소프트를 이용하면 이용자가 현위치 주변의 경관을 입체화면으로 볼 수 있어 알기 쉽게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증실험은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20~30대의 비즈니스맨 약 100명에게 3차원 도시지도와 루트안내 정보 등 GIS(지리정보 시스템)데이터를 배신받을 수 있는 실험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 실제로 길 안내를 체험토록 한 후에 앙케이트 받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3사는 실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기술적인 보완을 거쳐 동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KOTRA)

